

#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金廷坤 ·朴혜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對外經濟研究』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78, 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

#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金廷坤 ·朴혜리

## 국문요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 데 일정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WTO의 규범과도 배치되어 대외적으로 제도 철폐의 압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안팎의 제도개혁 요청과 맞물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불가피하였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대일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던 동 제도가 철폐되면, 대일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물론이고, 특히 일본이 우위에 있는 전자,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국내 산업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998년 해제된 캠코더와 1999년 마지막으로 해제된 중대형 TV, 전기밥솥, 휴대폰 등 네 개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수입선다변화 철폐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교역량을 분석하고 해당 국내산업의 대응과 국내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에 대한 당초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기업들은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수출시장을 겨냥하여 자본을 투자하며, 신기술 및 제품 개발에 매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상기 네 가지 품목 모두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수출신장률이 증가하였으며, 각 산업마다 기술개발과 투자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투명한 정부의 정책 운영 또한 기업들이 시장의 환경변

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일 시장개방은 소비자의 후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로 일본제품들의 국내수입이 용이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경쟁에 의한 품질 향상, 서비스 개선 등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였다.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7
제2장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운영 .....	10
제3장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영향과 대응 .....	17
1. 캠코더 .....	17
2. 휴대폰 .....	21
3. 중대형 TV(25인치 이상) .....	26
4. 전기밥솥 .....	31
제4장 결론 .....	37
참고문헌 .....	40
부록 1 .....	42
부록 2 .....	45
Executive Summary .....	47

## 표 차례

---

표 2-1. 대일 무역수지의 추이 .....	10
표 2-2. 1998~99년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	16
표 3-1. 세계 휴대폰시장 점유율(2003~04년) .....	26
표 3-2. 일제밥솥의 국내시장 점유율(일반밥솥) .....	33

## 그림 차례

---

그림 2-1. 수입선다변화 지정품목 수 추이 .....	13
그림 3-1. 캠코더의 대일 수출입 동향 .....	18
그림 3-2. 캠코더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	19
그림 3-3. 휴대폰의 대일 수출입 동향 .....	23
그림 3-4. 휴대폰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	24
그림 3-5. 중대형 TV의 대일 수출입 동향 .....	28
그림 3-6. 중대형 TV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	29
그림 3-7. 전기밥솥의 대일 수출입 동향 .....	32
그림 3-8. 전기밥솥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	33

## 제1장 서론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일본 무역역조를 막고,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1977년부터 시행된 수입수량제한조치이다. 동 제도의 시행에 따라 한국정부는 철강·화학·전자·기계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지정하여 대일 수입을 제한하였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단계적인 해제과정을 거쳐 1999년 6월 완전 해제될 때까지 국산제품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 데 일정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 제도는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차별적 수량제한을 모두 해제하도록 규정한 WTO의 규범과도 배치되었다.<sup>1)</sup> 더욱이 한국의 중화학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외환위기에 따른 안팎의 제도개혁 요청이 커지면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는 불가피하였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완전 해제는 국내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동 제도는 대일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이것의 해제는 곧 대일 무역수지 불균형을 확대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논란의 보다 핵심적인 측면은 동 제도를 해제할 경우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일본제품이 급속도로 국내시장에 침투하여 국내산업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이 국내산업을 위축 또는 심지어 고사를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연결되는 문제로써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

1) 최낙균(1999), p. 32, p. 105.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에 대한 당시의 우려는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협상의 타결, 그리고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시장개방을 둘러싼 논란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즉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증가가 과연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인가, 그리고 시장개방으로 소비자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가 등 시장개방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논란<sup>2)</sup>은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 약 7년이 지난 지금, 시장개방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사후 검토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본고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1998년 12월 지정 해제된 캠코더와 1999년 6월 마지막으로 지정 해제된 캠코더, 중대형 TV, 전기밥솥, 휴대폰 등 네 개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네 개 가전제품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직후 수입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 분야가 소비재, 그 중에서도 가전제품분야였으며, 동 제도 해제 당시 이 가전제품들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이 국산에 비하여 크게 앞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동 제도의 운영과정과 운영상의 특징을 개괄한 후, 해제 이후 위 네 개 제품의 교역량을 분석하고 해당 국내산업의 대응과 국내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

2) 시장개방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사항은 OECD, 손찬현·송유철 역편(1998), 『시장개방: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최낙균(1999); 최낙균 외(2001), 『경제개방 바로 알기』 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참고.

함으로써 본고를 마무리할 것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후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대일본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한 네 개 가전제품의 경우,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후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대응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어 시장개방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전환시켰다. 예컨대 캠코더의 경우 국내산업이 취약하여 가장 큰 우려를 산 품목이었으나,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후 대일, 대세계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내소비자 입장에서 동 제도의 해제는 긍정적이었다. 즉 일본산 제품의 수입제한이 풀리면서 일본제품의 가격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국내업체 역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국내시장규모의 건전한 확대가 이루어져 소비자 역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 제2장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운영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우리나라와의 무역역조가 심한 국가(과거 5년간 무역적자 폭이 가장 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가운데 수입대상국의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 공고하여 이 품목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승인절차 이외에 별도의 수입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77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사실상 일본제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운영된 제도였다.

표 2-1. 대일 무역수지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전체 무역수지(A)	대일 무역수지(B)	B/A
1971	-1,327	-692	52.1%
1975	-2,193	-1141	52.0%
1977	-764	-1779	232.9%
1980	-4,787	-2819	58.9%
1985	-853	-3017	353.7%
1987	6,261	-5,220	83.4%
1990	-4,828	-5936	122.9%
1993	-1,564	-8452	540.4%
1997	-8,452	-13136	155.4%
2000	11,786	-11362	-96.4%
2003	14,991	-19037	-127.0%

자료: 무역협회

수입선다변화제도는 1977년 CCCN<sup>3)</sup> 4단위 기준 7개 품목에 대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1978년 99개 품목을 추가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1980년에는 적용품목이 206개까지 늘어났다가 1984년 초에는 168개로 축소되었으나, 1984년 7월 대일 무역역조 심화에 따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CN 8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함에 따라 대상품목 수가 다시 590개로 늘어났다. 이후 법규정 변경, 대일 수지 개선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87년에는 379개로 다시 지정품목 수가 줄어들었다.<sup>4)</sup> 1982년 제정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 초기의 품목 선정기준은 (1)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2) 중화학공업의 생산 초기단계 제품으로서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3)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초기 보호가 필요한 품목, (4) 중소기업 초기 개발품목, 그리고 (5) 경쟁력이 있으나 대일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 정착시까지 보호가 필요한 품목 등 다섯 가지로서, 동 제도는 초기 시행기간 중 대일 무역수지 균형 유지, 유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 주요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동 제도의 운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대일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거듭하였으며, 수입선다변화 지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수입이 과다하였다. 또한 한국이 대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 CCC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가 있는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의 약칭이며, CCCN은 HS 품목표 이전에 사용된 관세품목의 국제표준이다. HS 품목표는 CCCN을 개편한 국제표준으로서, 미국, 캐나다도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품목표로서 자리잡았다. 한국은 1988년 HS 품목표의 발효와 함께 도입하여 국제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더하여 관세통계통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HSK)로 운영하고 있다.

4) 이상 온기운·신현수(199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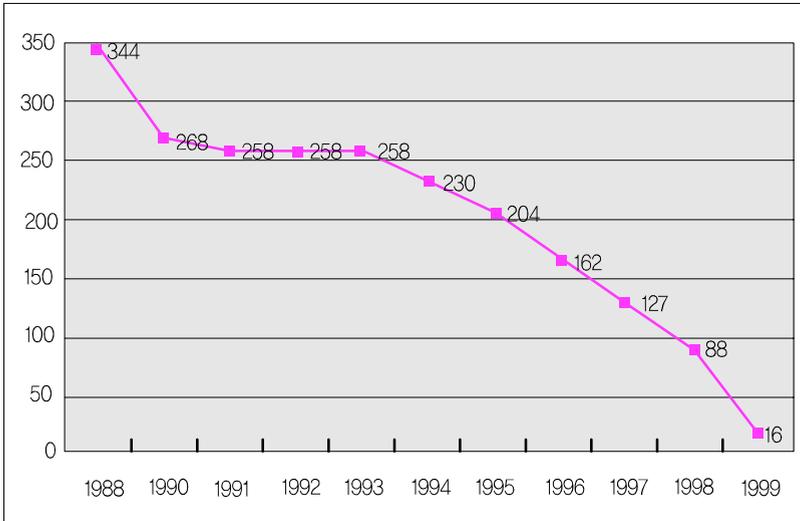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였거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제품, 그리고 수입수요가 미미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품목을 해제하고 대일 무역수지 보호에 필요한 핵심적인 품목 위주로 동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신규 지정을 억제하여 국내기업의 타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되었다.<sup>5)</sup>

운영방침의 기본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의 수는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신규 지정 없이 해제만 이루어졌다. 1988년 관세 분류기준이 HS 6단위로 전환되고, 1989년에는 다시 10단위로 품목 지정을 세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품목 수는 1987년 632개에서 1988년 344개, 1991년 258개로 계속 줄어들었다. 1990년대 들어 다시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에도 정부는 지정품목 수를 1991~93년간 258개로 추가 지정 없이 현상유지만 하였다.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면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축소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UR 이후 새로이 출범한 WTO 체제에서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수입수량 제한을 모두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GATT 13조)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동 제도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고, 새로운 운영방안에 따라 1994~98년 사이 매년 10%씩 지정품목 수를 감소시켰다.

5) 이상 오남경(2001), pp. 36~42 참고.

그림 2-1. 수입선다변화 지정품목 수 추이



자료: 온기운·신현수(1999)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IMF의 자금지원을 받게 된 1997년 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가량 앞당긴 1999년 6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완전 철폐하게 된다.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전반적인 원인을 요약하면,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외적인 압력과 UR 다자협상 등 자유무역이 확산되는 국제사회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보호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중화학공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던 데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실제로는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수입선다변화 지정품목이라 할 지라도 예외적 수입을 상당 부분 허용하여 동 제도의 유효성이 감소하였고, 일본제품의 제3국 우회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의 유용성이 떨어진 것이 제도 철폐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sup>6)</sup>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품목별 지정 및 해제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였다는 점이다. 1970년대 비공개로 동 제도를 운영하던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공개 운영」(1980년 11월 3일 공표)에 의거하여 공개적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1982년에는 「1982년 하반기 수출입기별 공고개정에 의한 품목 조정」에 의해 수입선다변화 지정 및 집행기준을 명시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입선다변화 지정품목은 매년 두 차례씩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용 공고를 통하여 사전에 공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지정 및 해제는 산업자원부 수입과가 국제수지를 기준으로 산업자원부내 각과에 품목신청을 의뢰하고, 각 과가 다시 산업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보하면 수입과가 해당연도의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에 이를 반영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품목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입업자의 역할도 약한 편이었지만, 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품목 선정 및 해제에 있어 상당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신규 지정 없이 해제만 이루어진 1993년 이후의 경우, 동 제도가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해제됨에 따라 보호받던 생산자들이 수입시장 개방을 대비하여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sup>7)</sup>

수입선다변화제도 시행기간 중 지정품목은 철강, 전자·전기, 기계, 화학, 자동차, 섬유, 요업의 주요 품목은 물론 밀가루 같은 식용품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도의 실효성과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품목 수는 점차 축소되었다.<sup>8)</sup> 1998년 12월과 1999년 6월 최종적으로 해제된 48개 품목(표

6)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온기운·신현수, 앞의 책을 참고.

7) 오남경, 앞의 책.

2-2 참고)을 업종별로 보면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 부문의 수가 전체의 70%에 달하였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자·전기부문의 컬러 TV(25인치 이상), VCR, 캠코더, 휴대폰, 전기밥솥, 기계부문의 NC 수평선반, NC 밀링머신, 머시닝센터, 굴삭기, 사출성형기, 자동차부문의 승용차 등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된 품목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품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일 개방에 따른 우려가 가장 컸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1998~99년간 최종적으로 수입선다변화 지정이 해제된 위 48개 품목 가운데, 특히 캠코더, 중대형 TV, 전기밥솥, 휴대폰 등 네 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과연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일 교역과 국내산업, 그리고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나중에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된 이 네 개 소비재 가전제품은 일본의 경쟁력이 매우 높고 수입개방 당시 국내소비자들의 선호도 또한 높았으며,<sup>9)</sup> 대일 시장개방 이후 수입급증 등 국내산업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sup>10)</sup>

8) 지정품목 종류의 구체적인 추이는 온기운·신현수, 앞의 책 참고.

9) 당시 한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소비자들은 일본제품의 품질이 국산에 비해 10~20%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국산에 비하여 일제가 품질과 만족도 면에서 우수하다는 대답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게다가 일본산 해당제품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2.2%로 국산의 11.9%에 비하여 두 배 정도 높았다. 『매일경제신문』(1999. 9. 20).

10) 일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6월 말 수입선다변화의 완전철폐를 앞두고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가전업체다. 국내업체를 지켜주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소니, 마쓰시다, JVC,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 등 일본의 강력한 가전업체와 정면대결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1999. 4. 29a). 실제로 수입선다변화 철폐 이후 소비재품목이 수입증가율은 자본재를 압도하였다(무역협회 2003).

표 2-2. 1998~99년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1998년 12월 해제품목(32개)	1999년 6월 해제품목(16개)
전기전자	발전세트, 수직식전동공구, 캠코더, 라디오카세트 CD플레이어, 자동차단기	전기밥솥, VCR, 휴대전화기, 컬러 TV(25인치 이상)
기계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선박용 내연기관부품, 냉매압축기, 자동포장 기계, 포크 리프트 트럭, 화심사용 래피어직기, 수치제어식 밀링머신,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사출성형기, 볼 베어링, 35mm 롤필름용 사진기, 전자식 복사기, 일반 아날로그 손목시계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품품, 굴삭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35mm 롤필름용 사진기(기타)
자동차	스테이션 왜건(1,000~1,500cc), 지프형 자동차(1,500~3,000cc), 지프형 자동차(디젤, 1,500~2,500cc)	세단형 자동차(1,000~1,500cc), 세단형 자동차(1,500~3,000cc), 세단형 자동차(3,000cc 초과), 스테이션 왜건(1,500~3,000cc), 지프형 자동차(디젤, 2,500cc 초과), 자동차용 부품품과 부속품
기타	밀가루, 아세톤, 엑스선검사용 조영제, 폴리아크릴아미드,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 부직포, 슬라이딩 플레이트, 자기제의 공기-대접-접시,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철강 어선, 플라스틱제 슬라이드화스너	승용차용 공기타이어

자료: 산업자원부

# 제3장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영향과 대응

## 1. 캠코더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캠코더... 일본제품(에) 내줄 위기... 캠코더... 가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분야 국내 시장은 일제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sup>11)</sup>

### 가.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시장변화

캠코더는 1998년 12월 다른 31개 품목과 더불어 수입선다변화 지정이 해제되었다. 1997년 국내 캠코더시장 규모는 220억 원 수준, 보급률이 10% 미만(선진국의 경우 보급률 70%)에 불과하여<sup>12)</sup> 수입선다변화 해제 당시 일본제품과 한국제품의 “격전지”로 꼽혔다. 실제로 1999년 초 테크노마트를 찾는 고객 1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캠코더는 TV와 더불어 수입개방시 가장 사고 싶은 일제 가전제품으로 꼽힌 바 있다.<sup>13)</sup> 캠코더는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전 비공식경로를 통한 유입이 많았는데,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소니 등 일본기업들이 국내 판매기반 구축에 활발히 나서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캠코더에 대한 신규 수요는 소형화, 고기능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형·경량화, 성능 향상, 사용 편의성에 주력하는 일본기업 제품이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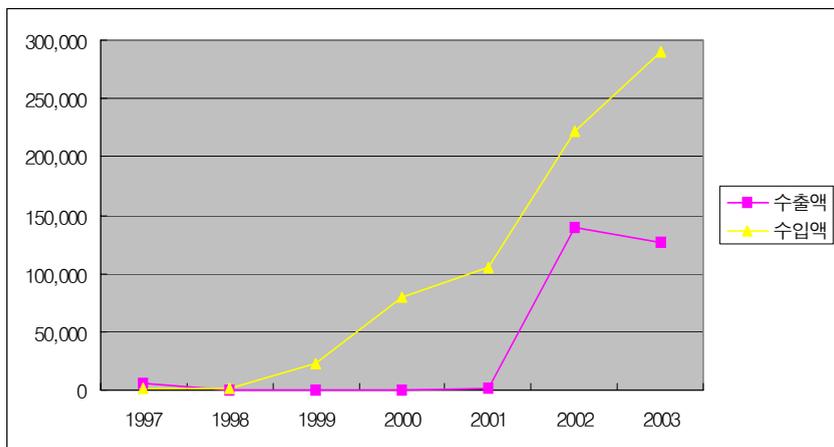
11) 『매일경제신문』 (1999. 1. 6a)

12) 심상만(1999)

13) 『매일경제신문』 (1999. 1. 6b)

그림 3-1. 캠코더의 대일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또한 국내 생산기반 역시 취약한 형편이어서<sup>14)</sup> 일본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가 크게 우려되었다. 1997~2003년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실제로 1999년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캠코더의 대일 수입은 약 81만 달러, 5,380대 규모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275만 달러, 4만 2,700대 규모로 커졌다. 이러한 대일 수입급증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져 2003년에는 2억 9천만 달러, 100만 대 이상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2004년의 경우 8월까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물량이 수입되어 2003년의 수입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내 캠코더시장이 일본제품의 수입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일본업체들은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여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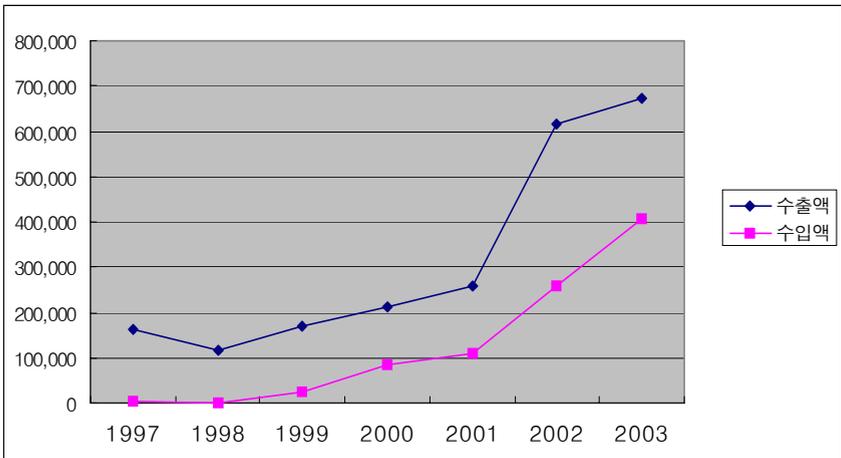
14) 심상만, 앞의 책. 수입선다변화 해제 당시 대우전자와 LG전자는 캠코더 생산에서 물러나고 삼성전자가 유일한 국내 생산자였다.

니, 파나소닉, JVC, 샤프, 히다치, 캐논 등이 현재 국내 시판 중이다. 일본업체들은 국내시장에 적합한 모델을 출시하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첨단 디지털제품을 속속 출시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sup>15)</sup> 일제의 시장점유율은 대일 수입개방전의 30%에서 2004년 현재 약 7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무적인 사실은 이 기간 동안 한국제품의 대일 수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1년 불과 150만 달러 정도를 일본에 수출하던 것이 2002년 이후 1억 3천만 달러 선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산제품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림 3-2. 캠코더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15) 복득규(2000)

한국의 캠코더 대세계 수입 가운데 일본제품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03년의 경우 캠코더의 대세계 수입액이 4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가운데, 일본제품의 수입이 무려 30억 달러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일 시장개방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일본제품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캠코더 대세계 수출은 대일 수출이 급증하던 2002년에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까지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캠코더 무역수지는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증가에 따른 흑자 폭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나.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영향과 국내산업의 대응

당초 수입선다변화 지정을 해제할 경우 가전제품 가운데 대일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품목이 캠코더였으며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소니, JVC, 파나소닉 등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수입선다변화 해제 전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캠코더산업이 고사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국내 기업은 A/S 등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본제품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대일 수출, 대세계 수출(미주, 유럽 등지)을 증가시켰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브랜드 이미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캠코더의 해외브랜드 이미지 인지도에서 삼성이 소니, 파나소닉, JVC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sup>16)</sup> 또한 품질 면에서도 국산제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소비자보호원이 발간하는 *Which?* 가 근래 19개 세계 유명사의 가전제품 고장률을 조사한 결과 삼성제품이 일본제품을 제치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3)

고 컴퓨터부문에서 가장 낮은 고장률을 기록하였다.<sup>17)</sup>

컴퓨터의 수입선다변화 지정 해제는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유지되던 당시 수입제한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컴퓨터시장 규모는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았다. 그러나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전에는 10%였던 컴퓨터 보급률이 2004년 현재 31%로 나타날 만큼 시장규모가 성장하였다.<sup>18)</sup> 또한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산제품의 품질 개선과 정상경로를 통한 일본제품 수입증가로 인하여 컴퓨터 가격이 꾸준히 떨어졌다[컴퓨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997년 122에서(2000년 100) 2003년 79.4로 떨어졌다(부록 2 참고)]. 그밖에 일본제품 수입개방은 국내업체로 하여금 더 나은 서비스, 더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극하였다.

요컨대 대일 수입시장 개방은 한국 컴퓨터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업체는 기술력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침투에 대비하였다. 또한 대일 시장개방을 통하여 그동안 잠재력에 비하여 크게 위축되어 있었던 국내 컴퓨터시장이 성장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제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선택·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2. 휴대폰

*“휴대폰은 지난 97년 7월 대일 수입이 1,000달러에서... 지난달에 와서는 668만 달러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일제 전자제품이... 국내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국산제품보다 품질대비 가격 면에서*

17) <http://www.which.net/>

18) 『연합뉴스』(2004. 7. 25)

경쟁력이 높아 앞으로도 수입이 크게 늘 것...<sup>19)</sup>

### 가. 수입다변화 해제 이후 시장변화

휴대폰의 수입선다변화는 당초 1998년 6월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부가 해제시점을 1년 연기하여 1999년 6월 해제되었다.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선정기준<sup>20)</sup>에 의하면 휴대폰은 조기 해제품목에 속해 있었으나 PCS 단말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본격적인 생산시점이 1998년이었으며, 일본 제조업체가 일찍이 CDMA기술을 확보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가격과 품질 면에서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1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휴대폰 보급률은 1997년 PCS 서비스 개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8년에는 30%까지 증가하였다. 휴대폰은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제품의 소형 경량화와 성능 향상에 따라 대체주기도 짧아서 급속한 시장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이었다. 1998년 당시 휴대폰의 수입의존도는 낮은 편이었지만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와 함께 2차 전지 부문에 기술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제품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부품 국산화율이 낮은 국내 단말기가 일본 단말기와 정면으로 경쟁하기는 힘들며 심할 경우 국내수출전략품목인 단말기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내 휴대폰의 부품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기술경쟁체제로 자체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19) 『연합뉴스』(1999.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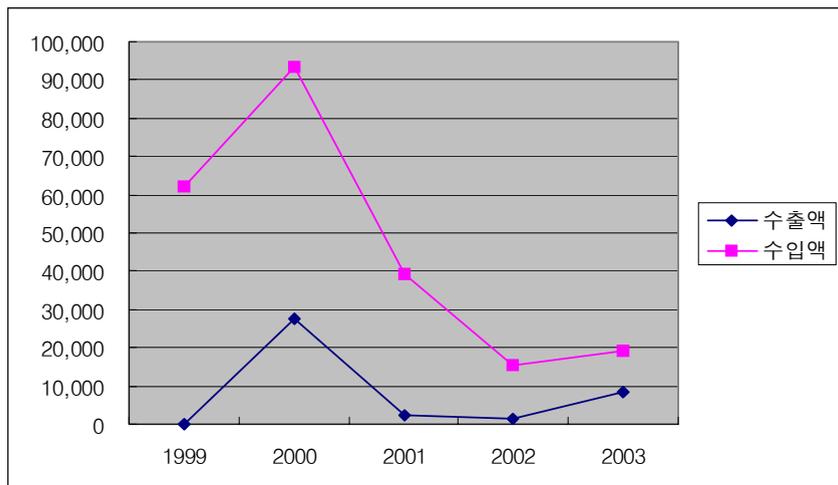
20) 정부(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수입선다변화 조기 해제품목의 기준은 1) 장기간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온 품목, 2) 수출비중 또는 국산화비율이 높아 대일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3) 내수시장규모 및 국내수요가 미미하여 대일 수입증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보호정책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휴대폰의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상이하였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인하여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일본제품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단말기 제조업자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고 단말기 납품가격 또한 낮아지며, 단말기 공급모델의 다양화로 인하여 제품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단말기 제조업체 측은 국내사업자들의 기호뿐만 아니라 일본업체들의 시장전략도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휴대폰은 캠코더, 전기밥솥 등의 품목과 마찬가지로 대일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3. 휴대폰의 대일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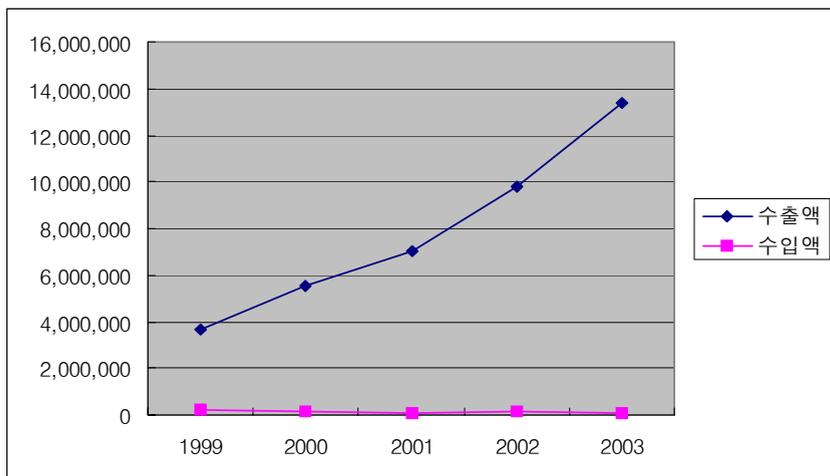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2개월 만에 일본제품의 수입이 38.3% 증가하는 등 수입시장에서 일본제품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휴대폰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대일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3-3 참고). 휴대폰의 전세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 한국의 휴대폰 수출이 3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현재 130억 달러를 넘고 있어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4 참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휴대폰시장이 일본제품에 잠식되는 일은 없었으며 오히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휴대폰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향후 한국의 휴대폰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 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휴대폰의 전세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나.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영향과 국내산업의 대응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기업들은 기존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공용화를 사용, 품질개선과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등을 도모하여 가격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였다.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제조업체들의 경우 대량생산용 사업자모델뿐만 아니라 자체 유통망 확보를 통하여 자체 브랜드로 판매할 유통모델의 개발에 힘을 쏟았다. 또한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산업마케팅을 강화하여 서비스업체의 요구와 고객의 수요변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단말기를 개발, 공급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핵심부품과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공급중단이나 기술이전기피현상에 대비하여 대형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부품 납품업체를 육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비용절감과 가격경쟁으로 가격이 단기간에 가장 많은 폭으로 하락하였다. 1997년 196이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2003년 현재 48까지 하락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제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이용하게 되었다(부록 2 참고). 그 결과 대일교역관계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수한 품질과 판매망을 확보한 대형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04년간 삼성전자는 13.9%, LG전자는 6.1%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다(표 3-1 참고).

표 3-1. 세계 휴대폰시장 점유율(2003~04년)

(단위: %)

업체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전자	지멘스	소니에릭슨	LG	기타
점유율	2003	34.7	14.5	10.5	8.4	5.1	5.0	23.8
	2004	27.7	14.7	13.9	6.4	6.4	6.1	24.9

자료: IDC

### 3. 중대형 TV(25인치 이상)

“컬러 TV는… 수요의 대형화 추세로 대형 TV의 대체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수입선다변화 초창기에는 일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up>21)</sup>

#### 가.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시장변화

25인치 이상 중대형 TV는 1999년 6월 마지막으로 수입선다변화 지정에서 해제된 품목 중 하나이다. 1999년 수입선다변화 해제 당시 국내시장에서 25인치 이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대형 TV에 대한 수요는 전체 TV 수요의 40%선까지 증가하여 25인치 이상 중대형 제품의 국내수요는 연간 93만 대 정도였다.<sup>22)</sup> 중대형 TV의 경우 캠코더와는 달리 밀수 등 비공식경로를 통한 유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수입개방을 통하여 일본제품이 급격히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국내제품의 경쟁력이 일제

21) 『한국경제신문』(1999. 6. 8) 한편으로는 형식승인 취득, 유통망 구축 등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제품 수입증가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심상만 1999).

22) Ibid.

못지않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TV 제품이 이미 시장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대형화, 멀티미디어화, 디지털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술이 진전되면서 고가, 고품질의 일본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급증이 예상되었다.<sup>23)</sup> 실제로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당시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히다치 등 일본 가전업체들은 중대형 컬러 TV를 전략품목으로 선정,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당시 국내 대형 양판점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대형 TV는 수입개방시 소비자가 가장 사고 싶은 가전제품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sup>24)</sup>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일본제품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1997~99년간 중대형 TV의 대일 수입은 비교적 적은 액수로 매우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0~01년간 대일본 수입량은 1999년에 비하여 약 5배 증가하였으나, 액수로는 400~6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국내 디지털방송 개시와 함께 2002년에는 3,900만 달러로 급격한 수입증가세를 보였지만,<sup>25)</sup> 수량으로는 1만 8천 대 정도로서 1999년 이미 90만 대를 넘어선 국내 중대형 TV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수입급증에도 불구하고 일제 중대형 TV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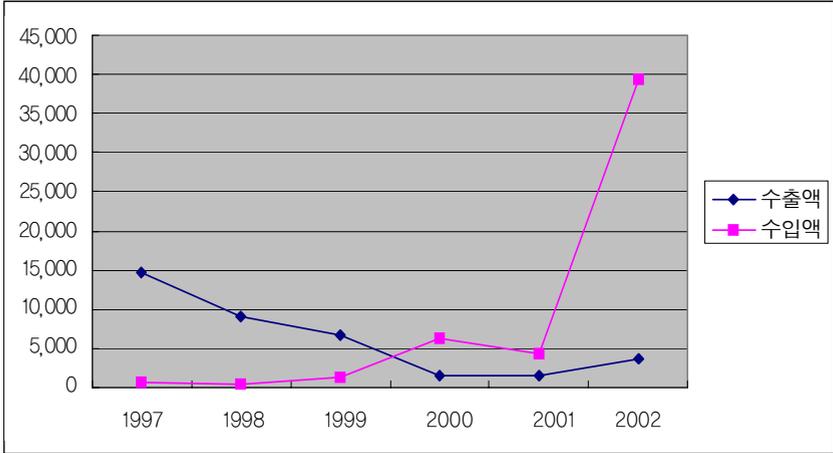
23) 심상만, 앞의 책.

24) 주 13) 참고.

25) 이러한 중대형 TV 수입급증현상은 당시 한국이 디지털TV방송을 개시한 것과 큰 연관성이 있다.

그림 3-5. 중대형 TV의 대일 수출입 동향<sup>26)</sup>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대형 TV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입선다변화 해제 당시 약 8% 정도였던 일본제품의 중대형 TV 수입시장점유율은 2002년 48%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7)</sup>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 제품의 수입시장점유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신장률 면에서는 국산제품에 크게 떨어져 외산 가전제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현대백화점의 경우 국산 TV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반면, 소니, NEC 등 수입 TV의 매출은 150% 신장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일제 TV의 국내 대형 양판점 판매비중은 2002년 현재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한편 한국업체들은 대세계 중대형 TV 수출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2002년의 경우 한국의 중대형 TV의 대세계 수출액은 약 3억

26) 2003년 이후 컬러TV의 HS 분류체계가 기존의 크기별 분류에서 CRT, PDP, LCD, 프로젝션 등 품종별 분류로 바뀌어 2003년 이후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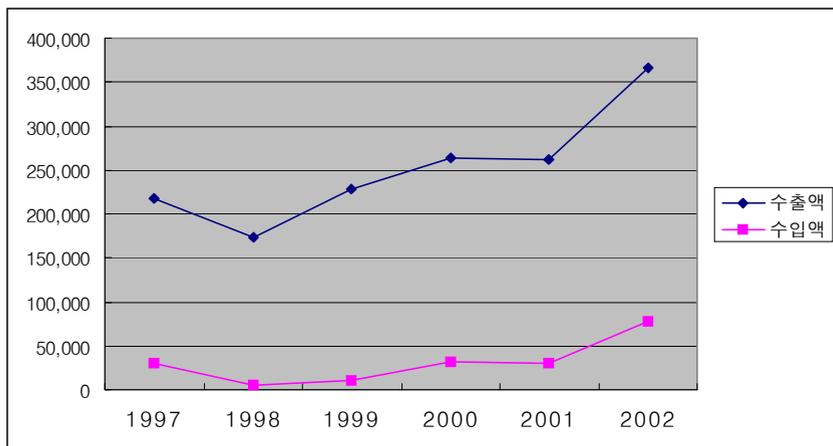
27) 무역협회(2003, 1)

28) 『전자신문』(2002. 6. 12)

5천만 달러로 전체 TV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1억 달러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림 3-6>에서 보듯이 중대형 TV에서 한국은 지속적인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2002년의 경우 거의 3억 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 대일 수입증가로 말미암아 1999~2000년, 2001~02년간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액수로 보았을 때는 전체 수출액대비 약 21%에 불과하다.<sup>29)</sup>

그림 3-6. 중대형 TV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9) 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대일 수입 이외에 말레이시아,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2002년의 경우 전체 중대형 TV 수입 가운데 일본이 51%, 말레이시아가 29%, 중국이 6%를 차지하였으며, 각기 수입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이 일본업체의 하청생산일 것으로 추정되어 이것을 고려할 경우 실제 대일 수입비중은 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영향과 국내산업의 대응

중대형 TV의 경우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대일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지털방송 실시, 29인치 평면브라운관 TV의 수요증가 등 경쟁력이 높은 일본제품에 유리한 국내여건 속에서도 일제 중대형 TV의 수입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국내업체들의 수출증가추세는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제품의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이처럼 예상보다 적은 까닭은 아직 일본업체들이 한국시장에 잘 적응하지 못한 이유도 일부 있으나 무엇보다 국내업체가 대일 시장개방에 미리 대비하는 한편, 중대형 TV의 국내 및 세계적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충실히 키워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TV업체는 국내시장 확대와 고부가가치 일본제품의 유입에 사전대비하여 중대형 TV의 유통 및 마케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완전평면, 프로젝션 TV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내수 및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화질 대형 TV 수요가 급증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내시장에서 LG, 삼성 등의 신제품이 일본제품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TV의 경우 국내업체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 수출한 바 있으며, 일본과 거의 대등한 기술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30)</sup>

중대형 TV의 대일 수입개방은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수입선다변화 해제는 국내업체들로 하여금 품질 및 생산성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유통망 개

30) 이하 통계청(2004); 『전자신문』(2002. 6. 12); 산업자원부(1999) 참고.

선, A/S 등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자극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TV의 국내 소비자가격지수는 1997년 121에서 2003년 82.5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부록 2 참고).<sup>31)</sup> 또한 중대형 TV의 수입개방은 소비자들의 막연한 일제 선호의식을 해소하고 가격, 품질을 국산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는 국내 중대형 TV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내기업들은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시장의 트렌드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내소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 4. 전기밥솥

*“수입금지에서 풀린…, 전기밥솥…, 일본제품들이 국내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sup>32)</sup>*

##### 가.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시장변화

전기밥솥은 25인치 중대형 TV 등과 함께 1999년 마지막으로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된 품목이다. 전기밥솥은 다른 가전제품에 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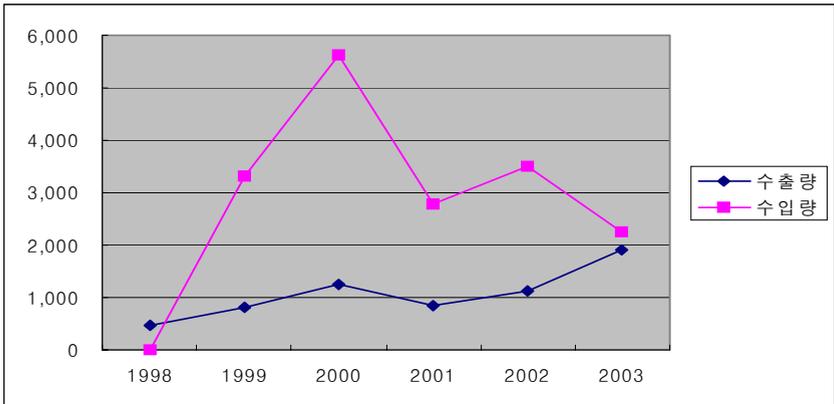
31) 본 수치는 전체 TV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이미 국내 전체 TV 수요 가운데 중대형 TV의 비중이 40%를 넘는 상황이던 것을 감안하면, 본 수치를 근거로 중대형 TV의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32) 『매일경제신문』(1999. 6. 29)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어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IH방식<sup>33)</sup> 밥솥의 국내 진출과 소비자들의 일본제품 선호도가 맞물려 일본제품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마지막까지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림 3-7. 전기밥솥의 대일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선다변화 해제 후 일본업체들은 일반 밥솥시장을 주 목표대상으로 하여 국내 판매대행사를 통해 진출하였다. 조지루시의 코끼리표 밥솥, 타이거, 내셔널 등의 제품이 대거 한국시장으로 진출하

33) 전자유도방식(Induction Heating: IH): 전기밥솥을 가열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전자유도방식(IH)과 열판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자유도방식은 코일에 전기를 흘려 자기장을 형성시켜 가열하는 방식으로 밑바닥에서만 열이 가해지는 열판방식에 비해 측면까지 열이 고루 전해져서 밥맛이 좋고 조리시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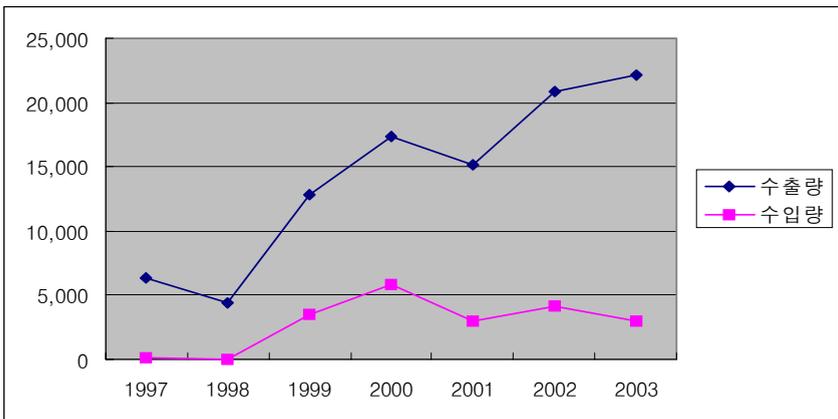
여 수입다변화 해제 직후에는 일본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급증현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9년 하반기에는 매달 4천~5천 대의 판매고를 올렸으나 2000년 들어서면서 월간 2천~3천 대 수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7 참고).

표 3-2. 일제밥솥의 국내시장 점유율(일반밥솥)

	1999년 7~12월	2000년 1~6월
국내시장	560	650
일본제품(점유율)	27(4.8%)	16(2.5%)

그림 3-8. 전기밥솥의 전세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일본밥솥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999년 하반기 4.8%에서 2000년 2.5%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밥솥의 대일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

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선전으로 대일본 역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산 전기밥솥이 한국시장에서 부진한 이유는 국내제품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국내수요가 늘고 있는 압력밥솥과는 제품성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산 IH밥솥은 가격이 비싸며 판매망 또한 많지 않아 A/S가 불편한 것이 큰 이유가 되었다.

전기밥솥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1998년 19만 대였던 수출량이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43만 대, 2003년 현재는 70만 대를 훨씬 넘는 수량을 수출하고 있다. 흑자 폭 또한 1998년 이후부터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3-8 참고).

#### 나.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영향과 국내산업의 대응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대비하여 한국업체들은 국내수요가 많은 전기압력밥솥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이는 일본제품의 시장진입을 억제한 큰 요인이 되었다. 국내 중소기업체들은 대일 수입시장개방에 대비, 전기압력밥솥의 기술개발을 꾸준히 하여 전기압력밥솥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해소하고 국내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일본산 IH밥솥의 국내판매가 예상외로 저조하였다.

대표적인 전기밥솥 중소기업체인 쿠쿠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경영, 마케팅분야에서도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다. 국내기업의 이점을 이용하여 A/S센터를 대폭 증가시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A/S의 품질 면에서도 대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방문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서비스요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고객이 제품을 서비스센터로 가지고 오는 불편함을 덜고 신

속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앙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각 센터별로 균등한 서비스 질을 유지토록 하였다. 이러한 쿠쿠홈시스의 전략은 사후서비스의 질에 따라 브랜드를 고르는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적절히 파악한 것이었다.

쿠쿠홈시스는 코끼리밥솥, 타이거 등이 대부분의 전기밥솥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에 쿠쿠라는 자체브랜드로 수출을 시작하였다. 가전제품에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일본시장에의 진출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서 수년간 일본시장을 연구하고 일본시장내 인지도를 높여온 노력의 결과이다. 쿠쿠홈시스는 2000년 마쓰시다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일본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에 힘썼으며 시장분석도 지속적으로 하였다. 또한 타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일본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효과가 큰 홈쇼핑으로 선진출한 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가격전략에서는 시장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여 국내에서는 저가정책을, 일본에서는 고가정책을 택하였다. 실제로 국내시장에서의 전기밥솥 소비자물가지수는 1997년 105에서 2003년 94로 하락하였으나(부록 2 참고) 일본에서는 고가 밥솥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할 계획에 있다. 이는 일본시장내 품질비교테스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검증받은 경쟁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전기밥솥의 기술력 또한 일본이 우위에 있었으나 국내기업은 수입선다변화 폐지에 대비하여 꾸준히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하여 기업이 시의적절한 전략적 투자를 구사할 수 있었던 점과 밥

솔제품 특성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주효하였다. 전기밥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을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여타 가전제품에 비해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의 경제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인구규모가 거대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많으며 지금의 수출증가세 또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밥솥의 성공사례는 중소기업의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 다각적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리한 수출입환경에도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중소기업의 예는 향후 우리나라 다른 중소기업에도 많은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 제4장 결론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당시 대일 무역적자의 확대와 우수한 일본제품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품질, 브랜드이미지, 디자인의 우위, 그리고 국내소비자의 높은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한 일본제품의 급격한 국내시장 침투가 우려되었다. 상당수의 주요 가전제품이 마지막까지 수입선다변화 지정품목으로 포함되었던 까닭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인하였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면 해제 이후 가전제품의 대일 수입은 예상대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캠코더는 1998~2003년간 수입액이 81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중대형 TV는 1998년 47만 달러에서 2002년 3,9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8년 수입이 극히 미미했던 일제 전기밥솥의 수입은 2000년 562만 달러로 급증하였다(부록 1 참고). 또한 휴대폰은 1999년 6,300만 달러에서 2000년 약 9,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한·일 양국간의 교역관계만을 보았을 때,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로 인하여 대일 수입은 대체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 역시 품목에 따라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캠코더의 경우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전 일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30%였으나, 2004년에는 약 70%로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가 국내 가전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빗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기업들은

일찌감치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겨냥하여 시의적절하게 자본을 투자하고 신기술 및 제품개발에 매진하였다. 캠코더, 휴대폰, 중대형 TV, 전기밥솥의 대세계 수출신장률은 수입선다변화 해제를 전후로 하여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캠코더 수출 역시 1998~2003년간 1억 1,600달러에서 6억 7,200달러로 580% 신장하였다. 휴대폰 역시 대세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대일 수입은 2000년 이후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전기밥솥의 경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의 신흥 수출시장을 선점하여 대세계 수출이 1998년 446만 달러에서 2003년 2,200만 달러로 거의 500% 증가하였으며, 수입선다변화 해제 직후 잠시 급증하던 대일 수입은 2000년 이후 뚜렷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중대형 TV는 일찌감치 디지털, 평면 TV 등 신규 수요에 대비한 결과, 수출이 1998년 1억 7,400만 달러에서 2002년 약 3억 6,500만 달러로 200% 이상 신장되었다. 이와 같이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보인 데는 정부가 사전에 시장개방을 염두에 두고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에 대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던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는 국내업체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및 유통망을 개선하도록 자극하여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대형 TV의 경우, 2002 월드컵 개최, 디지털방송 개시 등 일제의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국내업체가 적극적으로 신상품을 내놓아 일제를 앞서는 높은 판매신장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전기밥솥의 경우 대일 시장개방에 대

비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전기압력밥솥을 개발하여 높은 품질의 일제 IH전기밥솥을 앞질렀다. 특히 전기밥솥의 경우 전문적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제품이 일본제품을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대일 시장개방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로 동 상품들의 국내 수입이 용이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한편, 국내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내업체의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유통망개선, 서비스강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였다. 캠코더의 경우 대일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적정한 규모로 확대되는 한편, 제품이 다양화되고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휴대폰 역시 국내업체의 기술개발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네 가지 품목 가운데 가장 급격한 가격하락세를 보였다. 중대형 TV는 국내업체가 일본업체에 뒤지지 않고 신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국산이 일제와 대등한 품질을 갖추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여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기밥솥의 경우 국산이 품질도 우수했을 뿐 아니라 방문 A/S 실시 등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여 높은 국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였다.

## 참고 문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 12. 「해외 소비자들이 본 우리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매일경제신문』. 1999. 1. 6.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캠코더 오디오 시장 일본제품 내줄 위기』. \_\_.1999. 1. 6. 『가장 사고 싶은 일체 가전은 캠코더, 테크노마트 설문』. \_\_.1999. 4. 29. 『일본제품 몰려온다: 가전 하반기 불꽃경쟁 벌인다』. \_\_.1999. 4. 29. 『일본제품 몰려온다: 휴대전화, TV, 국산과 격돌 예고』. \_\_.1999. 6. 29. 『수입선다변화 전면해제: 국내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_\_.1999. 9. 20. 『소비자 절반 이상이 일본 수입제품 개방에 긍정적 평가』.
- 박진현. 1999. 「이동전화단말기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의 현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밸류에드. 2004. 7. 「품목별 시장동향」. (주)밸류에드.
- 복득규. 2000. 7. 5. 「일본제품이 몰려온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1년과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산업자원부. 1999. 6. 30.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 점검」.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심상만. 1999. 3.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영향분석」. LG경제연구원.
- 신승관. 2003.1.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대일 수입동향과 특징」. 무역연구원.
- 신현수. 1999.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의 영향과 대응』. 산업연구원.
- 『연합뉴스』. 1999. 8. 9. 『〈관세청〉 휴대폰-전기밥솥-카메라 등 대일수입 급증』. 2004. 7. 25. 『삼성전자 조사 가전제품 구매 백서』.
- 오남경. 2001. 2. 『수입선다변화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온기운·신현수. 1999. 『수입자유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용역보고서).
- 이균. 2001. 『관세론』. 박영사.
- 전자공업협회. 1999.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따른 일본업계 진출동향」. 『일간 전자공업』. 7월호.
- 전자신문. 2002. 6. 12. 『국산 TV 日 압도』.
- 최낙균. 1999. 『시장개방 바로 알기』. 산업연구원.
- 통계청. 2004. 3. 「디지털전자 주요품목 시장동향 분석」. 통계청.
- 한국관세학회. 1999.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대응전략」. 『한국관세학회지』.
- 한국경제신문. 1999. 6. 8. 『대형TV/VTR/휴대폰/밥솥 등 4개 제품 중심 본격 공략. 일본』.
- 한국무역협회 무역조사부. 1999. 11.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동향 및 정책과제」. 한국무역협회.
- . 2003. 1.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대일 수입동향과 특징』. 한국무역협회.
- 영국소비자 보호원. [<http://www.which.net/>]

## 부록 1

부표 1-1. 캠코더의 대일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천 대)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997	5,006	16,105	1,321	5,380
1998	677	2,010	813	343
1999	446	1,193	23,153	42,728
2000	507	3,540	79,545	135,406
2001	1,535	7,255	104,617	175,462
2002	138,750	1,033,054	221,261	557,457
2003	126,015	958,957	289,723	1,069,681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1-2. 캠코더의 대세계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천 대)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997	162,701	631,306	2,808	6,954
1998	116,059	454,486	1,509	1,169
1999	169,559	763,361	24,715	50,127
2000	212,266	999,192	84,643	154,080
2001	257,712	2,133,320	109,278	187,874
2002	616,059	5,465,193	259,757	1,365,631
2003	672,001	5,121,463	407,059	2,745,019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1-3. 휴대폰의 대일 수출입

(단위: 천 달러)

품목	수출	수입
1999	198	62186
2000	27,730	93407
2001	2,376	39111
2002	1,250	15375
2003	8,422	18998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1-4. 휴대폰의 대세계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연도	수출	수입
1999	3,662,450	195,775
2000	5,509,338	113,973
2001	7,046,419	76,648
2002	9,784,730	147,287
2003	13,355,293	112,149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1-5. 중대형 TV의 대일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천 대)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997	14,773	49,130	601	437
1998	9,120	42,133	473	688
1999	6,679	28,585	1,204	746
2000	1,571	6,089	6,167	3,947
2001	1,619	7,252	4,331	3,724
2002	3,654	12,728	39,336	18,083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1-6. 중대형 TV의 대세계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천 대)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997	218,120	512,637	30,799	45,889
1998	174,120	531,059	5,887	12,246
1999	228,783	656,307	9,753	13,914
2000	264,432	836,061	32,006	37,872
2001	261,516	796,297	30,033	42,330
2002	365,493	985,014	77,177	62,280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1-7. 전기밥솥의 대일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연도	수출	수입
	금액	금액
1998	466	2
1999	798	3,325
2000	1,261	5,622
2001	847	2,774
2002	1,126	3,497
2003	1,904	2,237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1-8. 전기밥솥의 대세계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천 대)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997	6,284	237,320	191	4,385
1998	4,463	194,491	45	427
1999	12,811	436,793	3,455	35,815
2000	17,414	678,250	5,851	65,072
2001	15,143	551,639	2,954	44,090
2002	20,846	768,347	4,113	86,518
2003	22,095	776,039	2,968	79,412

자료: 한국무역협회

## 부록 2

부표 2-1. 수입선다변화 대상 전자제품 품목 수 및 주요 해제품목 추이

연도	품목수	주요 해제품목
1994	41	VCR(폭 12.7mm 초과)
1995	37	휴대형 CD 플레이어, 자동차용 무선전화기
1996	29	녹화기용 TV 카메라, 라디오 CD플레이어
1997	22	자동차용 카세트 플레이어, 자동차용 라디오 CD플레이어,
1998	16	캠코더, 라디오 카세트 CD플레이어, 팩시밀리, 컬러TV(21"~25")
1999	4	전기밥솥, VCR(폭 12.7mm 이하), 휴대폰, 컬러TV(25"이상)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2-2. 국산화율과 자급도

품목(다변화 지정연도)	다변화 지정 전년도		1997년	
	국산화율	자급도	국산화율	자급도
가정용 캠코더(1988)	15	65	45	99.1
중대형 TV(1990)	-	-	90	93.2
휴대용 무선전화기(1991)	-	-	30	93.4
전기밥솥(1988)	82	99.4	80	75

자료: 온기운·신현수(1999)

부표 2-3.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 2000=100)

연도/품목	TV(1.5)	캠코더(0.2)	전기보온밥솥(0.6)	이동전화기(1.5)
1997	121.61	122.539	105.885	196.182
1998	118.363	116.345	106.85	152.357
1999	111.957	110.437	104.159	144.319
2000	100	100	100	100
2001	100.5	89.4	98.1	94.9
2002	95.9	82	96.1	75.3
2003	82.5	79.4	94.4	48.9

주: ( )안은 가중치.

자료: 통계청

## 부표 2-4. 전체물가지수

(단위: 2000=100)

시점	생산자물가지수(CPI)	소비자 물가지수(PPI)
1997	89.2	90,224
1998	100.1	97,002
1999	98	97,791
2000	100	100
2001	99.5	104.1
2002	99.2	106.9
2003	101.4	110.7

주: 가중치는 1,000으로 줌.

자료: 통계청



## Executive Summary

---

Import Diversification Program (IDP) was introduced in June, 1999 to diversify the sources of imports as to alleviate the chronic trade deficit with Japan and to protect our immature industry. IDP, until its elimination in the end of 1999,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creasing import from Japan and encouraging competitiveness in domestic companies. IDP was criticized for running counter to the rules of the WTO.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crisis, the phasing out of the IDP was accelerated and eventually on 30 June 1999, the program was finally eliminated.

Elimination of IDP was controversial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deficit increase with Japan and the potential damage to domestic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s, mechanics, and vehicles, in which Japan is predominant.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s trade patterns after the elimination of IDP focusing on camcorder, mid-and large-sized televisions, cell phones, and electronic kettles. Moreover, we explore the challenges that those industries experienced and changes in market situation.

Problems, with which we had been concerned were not serious. Our companies have prepared for trade liberalization and have increased investment, targeting international market: thus they have produced competitive products.

Export growth rate and production of 4 products has increased. Our companies have opened a market in the world. The transparent trade policy of the government, which makes it possible for companies to prepare for new situations, is also laudable.

In terms of consumer welfare, elimination of IDP has a positive effect, as it allows consumers to buy lower priced high-quality goods, to have more product options and better services.

## 金廷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jg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비관세장벽의 논의동향과 전망』(2004)

『“2004 WTO 무역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과 거시경제정책의 연계성(coherence)을 중심으로』(2004) 외

## 朴혜리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1)

미국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석사(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現, E-Mail: hr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과 전망』(2004)

『The Analysis of Monopoly Power』(2002)외

정책자료 04-07

---

###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2004년 12월 25일 인쇄

2004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

인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대표 강대원

---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2082-4 94320 정가 2,000원  
89-322-2068-9(세트)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대일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던 동 제도가 철폐되면, 대일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물론이고, 특히 일본이 우위에 있는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의 분야의 국내 산업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998년 해제된 캠코더와 1999년 마지막으로 해제된 중대형 TV, 전기밥솥, 휴대폰 등 네 개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수입선다변화 철폐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교역량을 분석하고 해당 국내산업의 대응과 국내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060-1178 FAX : 3460-1144



정가 2,000원